

보도시점      배포즉시      배포      2026. 6. 29.(월)

## 조달청, 주인 없는 땅 572필지… 국유화 추진

무주부동산 6개월간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(무주부동산) 572필지(416,060㎡)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6년 6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\*를 실시한다.

\* 관보, 일간신문[중앙일보], 조달청 누리집(www.pps.go.kr)에 게재

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되었거나,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.

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\*하게 된다.

\*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,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

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('26년 5월말 기준) 총 43,666필지(110km<sup>2</sup>,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)의 토지를 국유화했다.

조달청	공공물자국	책임자	과 장	공석 (042-724-6400)
	국유재산기획과	담당자	서기관	양삼모 (042-724-6421)